

한국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관한 연구*

Sex-Role Attitude, Conjugal Status Level and Status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Living in Korean Rural Area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최규련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Univ. of Suwon
Professor: Choi, Kyu Reon

〈목 차〉

I. 서 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ex-role attitude, conjugal status level and status satisfaction of rural married women as a part of study on problem diagnosis and status enhancement of Korean rural women. The subjects were 919 married farming women.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Rural women's sex-role attitude were conservative attitude. 66.7% of them conceived that their husband had more conservative attitude than them. Variables as age, education level, and farming work type were significant related with sex-role attitude.

2) Conjugal status level (housework sharing, domestic decision - making, agriculture decision-making, property rights) of rural women were low and not equal. It was affected by sex-role attitude, the proportion of their work to family farming work, similar/different type of sex-role attitude of couples, and their farming work type.

3) Their status satisfaction were low and affected by factors such as similar/different

* 농촌진흥청 '99년도 농업특정연구사업으로 수행된 농촌여성 문제진단 및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의 일부임

type of sex-role attitude of couples, conjugal status level, sex-role attitude, their farming work type, and education level.

◆ key word: 농촌여성, 양성평등, 성역할태도, 지위수준, 지위만족도

1. 서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만큼 최근 과거에 비해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자기개발, 지위향상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UN이 정한 '여성발전 10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2001년도에는 여성부가 발족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로 도시여성과 주로 직장에 출퇴근하는 공식적 취업 여성으로 제한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에게 아직 파급되지 못한 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영농기술교육, 가사도움미제도, 출산장려금제도 등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농촌여성의 지위수준에 관한 기초 조사가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 나라 농촌여성은 산업화이후 젊은이의 이농 가속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 농업활동이 증대되었다. 즉 1960년 38.7%이던 여성의 농림업종사자 비율이 1970년 42.2%, 80년 44.6%, 90년 47.2%, 95년 48.6%로 증가하였고(농림부, 1998), 1998년에는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한다(통계청, 1999).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고령에 저 학력자가 많아 기술수준이나 직업의식이 낮고 농촌사회와 남성들의 보수적 태도, 여성 자신의 의식부재 등이 작용하여 역할증대에 수반하는 지위향상이 미비한 것으로 문헌연구와 일부 실증연구에서 보고된다(김주숙, 1988; 농촌진흥청, 1993, 1997; 심미옥, 1997; 오임숙,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87, 1990, 1999b).

특히 농업인의 경우 부부가 함께 영농활동과 가정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농업인 여성의 지위수준은 부부간의 지위수준과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여성의 지위수준을 가족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을 부부권력의

평등정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 때 평등한 부부관계이고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낮을 때 불평등한 부부관계로 간주하고, 그 실태와 관련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부부간의 권력을 설명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 이론과 자원이론의 농업인 부부간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고 있지만 남성들의 변화가 여성보다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을 이해하는데 성역할 이데올로기 이론을 적용하여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물론 그 남편의 성역할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이론을 적용하여 학력, 직업유형, 소득, 농사일비용 등의 변인들이 부부간 지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도 밝혀진 바가 없다. 농촌여성의 지위만족도는 그들의 지위에 대한 의식을 파악할 수 있고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비된 점을 조사하기 위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관하여 전국적인 표집을 통한 질문지 방법으로 실태와 관련변인을 조사하고, 지위수준과 지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그들이 지각한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 차이 경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각각의 관련변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2.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실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관련변인과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3.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만족도는 어떠한가? 그

리고 관련변인과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성별에 따른 역할에 관한 태도로서 남성우위와 역할분리를 선호하는 보수적 태도와 남녀평등과 역할공유를 선호하는 평등적 태도로 구분되어 연구된다. 관련변인으로 연령, 학력, 거주지, 성별 등이 보고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여성들이 더 평등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남성들이 보수적 태도를 나타냈다(박양자, 1995; 최규련, 1984a, 1984b; Scanzoni & Fox, 1975).

우리 나라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가치관조사의 일부로 한정된 지역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 제주지역 농촌여성에 관한 연구(허도희, 1995)는 장남의 부모부양 책임, 가족대표권, 남아선호 등의 가족가치관이 대체로 전통적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소유토지 면적이 많을수록 전통적이라고 하였다. 전북지역의 농촌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이성희·하근영, 2000)는 남편에 대한 순종, 남편외도, 이혼, 권위적 아버지상, 장남의 부모부양 책임, 가장의 권위, 남아선호, 가장의 가사노동 등을 포함한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전통적 가치관이 우세하고, 농·축·어업 종사자, 연령이 높은 경우, 월수입이 적은 경우, 5명 이상 가족일 때 더 전통적이었다. 정기환(1997)은 농촌여성들은 가사분담에 대해 전통적 태도를 지닌다고 하였으나 관련변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전국 규모의 농촌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성개발원, 1993)에서 남아우선 상속권, 부모위주 자녀관, 조상제사, 남편우위,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전통적으로 나타났고, 농촌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가사역할, 의사결정, 가계부양역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김경미, 1997)도 전통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관련변인으로 연령, 학력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성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여성의 가치관 실태를 알 수 없다.

또한 농촌의 남녀별,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에 관한 조사는 아직 없으며 다만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이미영, 1994; 최규련, 1984a, 1984b).

그러므로 선행연구가 미비한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각한 남편과의 성역할태도 차이에 관하여 조사하며 그 관련변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부부간 지위수준

농촌여성의 지위에 대해 공공영역과 가정에서의 권력 혹은 의사결정권 참여정도로 정의되기도 하고, 재산 등의 물질적 자원과 지식, 존경, 권력, 의사결정권 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정도로 정의되기도 한다(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농업참여가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상대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유배우의 농업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종래의 농촌여성의 지위를 평가하는 지표는 남편과 비교한 상대적 지위인 부부간 지위수준으로서 토지나 재산의 소유여부, 영농 의사결정참여도, 가정내 의사결정참여도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김종숙·정명채, 1992; 김주숙, 1988; 박수미, 1995; 심미옥, 1997; 정기환, 1997). 이외에 노동생산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활동참여 정도, 결속집단 존재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포함되기도 한다(김영란, 1989; 농촌진흥청, 1997).

흔히 부부간 지위는 부부간 권력의 개념과 혼용되고 척도로 의사결정 참여정도나 상대적 지위 지각이 사용되고 있다(심미옥, 1997; 최규련, 1990).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이 지각한 부부간 지위수준을 중심으로 실태와 관련변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며, 아울러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의 향상은 여성의 동등한 권력으로 간주되므로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의 적용여부도 탐색하고자한다.

본 연구자는 부부권력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인 성역할 이데올로기 이론과 자원이론에 주목한다. 성역할 이데올로기 이론은 부부 중 누가 권력을 가져야하는가에 대한 사회규범과 문화규준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성역할태도로 측정된다. 그에 따라 성역할태도가 부부간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아내와 남편이 평등적 성역할태도일 때 부부권력이 동등하다고 한다. 자원이론에서는 부부 개인의 속성이 자원으로 작용하여 권력이나 지위를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주로 학력, 가계기여도, 소득 등이 자원으로 측정된다. 그에 따라 아내의 학력, 가계기여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권력이 증가하고 지위가 향상된다는 추론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두 이론이 주로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대체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고되나(이진숙, 1989; 최규련, 1990) 농촌여성에 대한 이론 적용은 아직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1991)에서 개발한 도시부부의 평등한 부부관계 요소인 가사분담, 자녀양육 분담, 가정 내 의사결정 참여, 재산명의의 공유 등의 항목들의에 농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를 추가하여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지표를 정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차례로 고찰하였다.

먼저 농촌여성의 가사 분담 측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부부간 지위차원보다 역할수행차원으로 접근하였고, 가사영역구분이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아서 그 결과도 상이하다. 대체로 부인이 식사준비와 설거지, 세탁, 아이보기 등을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장보기, 청소 등은 남편이 약간 참여한다(고정숙·이한기, 1993, 1994; 이한기·고정숙, 1996, 1997; 정기환, 1997; 최덕경, 1999; 한국여성개발원, 1987). 한편 식사준비와 설거지, 세탁 외에 집안청소도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하며 남편은 자녀양육과 교육에만 약간 참여한다는 보고도 있다(김경미, 1998; 농촌진흥청, 199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사분담의 관련변인에 관한 분석이 거의 없고 특히 성역할 태도와 관련시킨 분석은 전무하다. 다만 도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 때 가사분담정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이성희·김태현, 1989; 최규련, 1995)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측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농촌진흥청, 1997; 오임숙, 1992; 정기환, 1997; 한경혜·장미나, 1993; 허도희, 1995) 가정내 의사결정은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향이나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은 남편이 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관련변인으로 제주도 농촌여성의 경우(허도희, 1995)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토지소유면적이 적을수록 여성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높은 반면 영농의사결정권은 낮았으며, 이외에 축산농가, 시설채소 농가, 과수농가, 등에서 다른 농가보다 부부공동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오임숙, 1992; 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의 재산소유나 명의측면을 조사한 연구들(김종숙 외, 1992; 농촌진흥청, 1997; 조현숙, 1999)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여성의 재산소유명의 지위수준은 매우 낮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그 관련변인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농촌여성의 지위수준을 가정내 의사결정참여, 영농 의사결정참여, 재산소유,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참여 등의 복합적 지표로 조사한 연구가 한편 있다(농촌진흥청, 1997).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3점으로 중간이하의 지위수준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많은 경우, 성장지가 농촌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남편과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느끼는 경우에 농촌여성의 지위수준이 더 낮으며, 학력, 가족형태, 겸업여부 등은 지위수준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가 부부간 지위향상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이유로서 여성의 평등의식의 부재 및 전통적 성역할태도, 여성의 직업의식 부족,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농사일, 생산수단의 소유제한 등이 지적되나(김영란, 1989; 김종숙 외, 1992; 김주숙, 1988)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없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농촌여성의 지위수준은 연구자마다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이 상이하고, 가사분담 정도를 포함한 복합지표를 사용한 연구가 매우 적으며, 관련변인의 영향력과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가 전무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사분담 정도, 가정내 의사결정권, 농사일 의사결정권, 재산명의를 하위영역으로 한 부부간 지위수준을 파악하며 성역할태도, 학력 등을 비롯한 관련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의 검증도 병행하고자 한다.

3. 부부간 지위만족도

지위만족도란 농촌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농촌여성이 현재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변인들이 지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지위향상을 지원하는 대책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지위수준에 관한 분석과 아울러 농촌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사분담, 자신의 발언권, 재산명의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며 이에 관련되는 변인이 어떠한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기혼의 농업인 여성이다. 농촌지역 선정 시 종전에는 행정단위로 읍·면 지역을 규정하였으나 최근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분류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물론 시 지역에서도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이곳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1) 성역할태도

(1) 성역할태도

한국여성개발원의 남녀평등의식검사(1999a)를 연

구자가 축약한 9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분석시 점수가 높아질수록 평등적 태도가 되도록 재 부호화 하였다. 문항은 '재산의 공동명의', '최종 의사결정권', '집안일의 성별분업', '여성의 본분', '생계부양자', '여성다움', '남성 위주의 가계계승', '남성우위 관념', '대표권' 등에 관한 선택적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77이었다.

(2) 남편과의 성역할 태도차이

여성이 지각한 남편과의 성역할 태도차이를 묻는 5점 리커트 척도 1문항으로 되어있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 '남편과 아내가 비슷', '아내가 남편보다 약간 보수적', '아내가 남편보다 매우 보수적'의 5가지 중 한가지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적을수록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2) 지위수준

(1) 가사 분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온 식사준비와 설거지, 집안청소와 정리, 빨래와 옷 정리 등 3개 문항에 대한 부부의 상대적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부부가 비슷하게', '남편이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로서 Cronbach α 값이 .76이었다. 3점은 부부가 동등한 가사분담을 하는 것이고 점수가 적을수록 여성이 가사를 전담함을 의미한다.

(2) 가정내 의사결정권

예금이나 보험가입, 자녀교육, 큰살림구입, 시가와 친정부조 등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묻는 4문항과, 가정사에 대한 부부간의 발언권을 묻는 1문항으로 도합 5문항이다. 의사결정참여도는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부터 '부부 공동결정',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발언권은 '남편의 발언권이 매우 큼'부터 '부부 동등', '아내의 발언권이 매우 큼'까지로 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 값에 의한 신

되도 계수는 .69이었다. 3점은 집안일 의사결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점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집안일 의사결정 참여와 발언권이 낮음을 의미한다.

(3) 농사일 의사결정권

경작작물결정, 농산물처분 및 관리, 농사일정, 영농자재구입 등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묻는 4문항과 농사일에 대한 부부간의 발언권을 묻는 1문항으로 도합 5문항이다.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Cronbach α 값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84이었다. 3점은 여성이 동등하게 농사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동등한 발언권이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적을수록 이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참여와 발언권이 낮음을 의미한다.

(4) 재산명의

부부 사이에 토지, 주택, 예금 및 보험 등 재산에 대한 명의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되어있다. '전적으로 부인명의'에서 '반반', '전적으로 남편명의'로 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고 Cronbach α 값은 .80이었다. 분석시 점수를 역산해서 3점은 부부가 동등한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남편에게 재산명의가 독점되어 여성의 지위는 낮음을 의미한다.

(5) 전체 지위수준

전체 지위수준 측정은 이상의 4개 영역별 점수를 합한 전체 점수를 5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로서 Cronbach α 값은 .61이었다. 3점은 부부가 평등한 것이고 점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지위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3) 지위만족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사분담, 집안일과 농사일에 관한 발언권, 재산명의 등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불만'부터 '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Cronbach α 값은 .74이었다. 점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인구학적 변인 및 기타 변인

연령, 자녀수, 자녀연령, 동거 가족수,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수, 결혼유형, 가족형태, 결혼년수, 농업종사기간, 주농사 형태, 1년 총소득 등은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있고, 농사일 비율은 가정 내 농사일 중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학력, 지대(地帶), 가족형태, 직업유형 등은 단일문항으로서 응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3. 자료수집

척도작성을 위한 1차 예비조사로서 1999년 6월 경기도 농가주부모임 임원 180명을 면접조사 하였고 척도의 보완을 위한 2차 예비조사로 경기도 용인지역 30명과 충남 천안지역의 30명을 직접 면접조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여성인구 및 지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국 8개 도를 지역과 인원수를 정하여 1140부의 질문지를 배분하였고 제주지역은 추가로 20부를 배분하였다. 질문지 배부와 회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의 협조를 받았고 일부지역은 본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직접 담당하였다. 거의 대부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였으나 60대 이상의 경우는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하였다.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42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1160부를 배부하여 최종 1017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기재가 불성실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남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919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성역할태도, 지위수준, 지위만족도 각각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고 추후검증을 위하여 Scheffé - test를 실시하였다. 지위수준과 지위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Pearson의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고,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농촌여성들의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으며, 평균 연령은 45.5세(표준편차 8.4)이었다. 교육수준은 66.5%가 중졸이하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2.9명이었다. 맏 자녀와 막내자녀 평균연령은 각각 21.7세, 16.7세이었다. 평균 동거가족 수는 4.1명이고 외지에 나가있는 가족 수는 평균 2.6명이었다. 가족유형에서 핵가족이 58.4%로 가장 많고 확대가족은 41.6%이었다. 대체로 이 표본은 일반 농촌가족 보다는 확대가족이 많은데 이는 연구대상에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여성을 제외하고 40~50대를 많이 포함시킨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평균 결혼기간은 21.7년이고 평균 농사기간은 19.9년이었다. 주 농사는 쌀농사와 밭농사가 69.2%로 가장 많으며 축산 12.8%, 과수 11.1%, 시설채소와 특작 6.9%이었다. 직업유형에서 농업보조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고, 농업인이 34.1%, 농업과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7.8%이었다. 연소득은 1001만원 - 2000만원대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평균 연소득은 27,598,000원이었다. 지대는 도시근교가 가장 많으며(46.4%) 중산간지(32.4%), 평야지(21.1%)순 이었다. 이들의 가정 내 농사일참여 비율은 평균 53.28%이었다.

2. 농촌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

1) 성역할태도

농촌여성들의 성역할태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07이고 표준편차는 .41로 약간 보수적 태도를 나타냈다.

관련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대로 연령, 학력, 연소득, 직업유형, 주 농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30대~40대 집단, 학력이 대졸이상 집단, 연소득이 30001만원 이상인 집단, 여성이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농사로 시설채소와 특작을 하는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평등적인 경향을 나타냈고 이중 연령, 학력 변인만이 하위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 중 연령, 학력, 연소득에 따른 결과는 가족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김경미,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3; 허도희, 1995)결과와 유사하다. 직업유형별, 주 농사별 차이는 연령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시설채소나 특작을 하는 경우 젊은 층이 많고 학력도 높은 상황(농림부, 1998; 농촌진흥청, 1997)이어서 더 평등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 같다.

2) 부부간 성역할 태도 차이

여성들이 지각한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경우가 25.8%,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경우가 40.9%로 약 66.7% 정도의 아내들이 남편이 자신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부부간에 성역할태도가 같다고 지각하는 경우는 21.3%이었다. 한편 아내가 남편보다 약간 보수적인 경우 9.9%, 아내가 남편보다 매우 보수적인 경우가 2.1%로 12%정도의 아내들은 자신이 남편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차이검증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유형변인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업인 집단에 비해 남편이 아내보다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더 적었다. 이는 이 집단이 농업인 집단이나 농업보조자 집단보다 평등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와 관련되는 것 같다. 이로써 농촌여성이 지각하는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연령, 학력, 연소득 등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3. 농촌여성의 지위수준

1) 일반적 경향

(1) 가사 분담

전반적으로 가사 분담 평균값이 1.40이고 표준편차는 .50으로서 여성이 전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준비와 설거지(1.29)에서 여

〈표 1〉 변인별 성역할태도와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분석

N=919 #

독립변인	집 단 (사례수)		성역할 태도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
			M (SD)	M (SD)
연령	30대이하	(240)	2.23 (.36) c ¹⁾	2.13 (.94)
	40대	(421)	2.12 (.36) c	2.25 (.99)
	50대	(214)	1.92 (.45) b	2.27 (1.10)
	60대이상	(44)	1.78 (.48) a	2.14 (.98)
F 값			36.21***	1.98
학력	초졸이하	(281)	1.91 (.46) a	2.29 (1.07)
	중졸	(332)	2.11 (.36) b	2.24 (1.03)
	고졸	(282)	2.18 (.36) b c	2.14 (.90)
	대졸이상	(25)	2.32 (.32) c	2.12 (1.20)
F 값			26.46***	1.21
연소득	1000만원이하	(142)	1.98 (.39) a	2.24 (1.01)
	1001-2000만원	(291)	2.07 (.43) a	2.23 (1.02)
	2001-3000만원	(244)	2.07 (.38) a	2.23 (1.06)
	3001-4000만원	(110)	2.17 (.36) a	2.19 (.93)
	4001-5000만원	(62)	2.09 (.50) a	2.21 (.90)
	5001만원이상	(69)	2.15 (.39) a	2.14 (1.02)
F 값			2.82*	.13
가족 유형	핵가족	(537)	2.06 (.43)	2.22 (1.01)
	확대가족	(382)	2.09 (.40)	2.21 (1.00)
t값			-0.82	.13
직업유형	농업	(313)	2.08 (.44) a	2.33 (1.02) b
	다른직업+농업	(72)	2.17 (.49) a	2.13 (.99) a
	농업보조	(534)	2.05 (.38) a	2.16 (.99) ab
F 값			3.07*	3.10*
주농사	일반농사	(636)	2.05 (.42) a	2.25 (1.01)
	과수	(102)	2.09 (.38) a	2.12 (1.02)
	시설채소, 특작	(63)	2.18 (.43) a	2.14 (.95)
	축산	(118)	2.13 (.42) a	2.18 (.98)
F 값			2.89*	.69

* p<.05 ** p<.01 *** p<.001

결측치에 따라 사례수가 차이있음

1) 추후검증 결과 동일 문자는 동일한 하위집단에 속하는 것임.

성의 전담경향이 매우 높았고 다음 빨래와 옷정리(1.35), 집안청소와 정리(1.57) 등이었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여성의 가사일에 남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가사의 공유 정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선행연구결과(김경미, 1998; 농촌진흥청, 1997)와 유사하다.

(2) 가정내 의사결정권

가정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권 참여도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3.04이고 표준편차는 .57이었다. 전반적인 가정내 의사결정은 부부공동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발언권이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예금 및 보험가입(3.02)과 자녀교육(3.09)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동등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되고 있으나 큰살림구입(2.90), 시가 및 친정부조(2.88)의 경우 남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약간 높았다.

(3) 농사일 의사결정권

농사일 의사결정권 평균값은 2.39이고 표준편차는 .73이었다. 이는 농사일에 대하여 남편의 의사결정권과 발언권이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에서 가정내 의사결정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발언권이 동등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농촌진흥청, 1997; 오임숙, 1992; 정기환, 1997; 한경혜 외, 1993; 허도희, 1995)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특히 농사일 중 영농자재 구입(2.07)과 농사일정(2.47)은 남편이 주로 결정하고, 경작작물 결정(2.50), 농산물처분 및 관리 결정(2.71)도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아내의 의사가 약간 참조되는 정도이었다. 이는 농가에서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노동분업은 확실하게 남아있고 서로의 전문영역에 대해서 배우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정기환, 1997; Alston, 1995; Reimer, 1986; Sachs, 1983; Whatmore et als., 1994).

(4) 재산명의

토지와 주택, 예금, 보험 등의 명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토지(1.66)와 주택(1.65)은 남편의 명의가 대부분이고, 예금이나 보험의 명의(2.52)도 주로 남편으로 되어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값이 1.94(표준편차 .84)로서 대부분의 재산명의에서 여성의 지위수준은 낮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김중숙 외, 1992; 농촌진흥청, 1997; 조현숙, 1999)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5) 전체 지위수준

가사분담, 가정내 의사결정, 농사일 의사결정, 재산명의 정도를 합한 종합적 지위수준은 평균 2.18점(표준편차 .42)으로서 부부가 평등한 3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유사한 선행연구(농촌진흥청, 1997)의 2.3점보다 낮은데 이는 척도와 조사지역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2) 관련변인

(1) 차이분석

① 가사분담

관련변인에 대한 분석결과 <표 2>에 나타난 대로 학력, 직업유형,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 변인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대졸이상 집단,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부간에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사분담 정도가 높았다. 추후검증결과 대졸이상 집단과 초졸집단 간에,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농업이나 농업보조자 사이에,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유사한 경우와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경우 사이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중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성역할태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앞의 결과에서 학력이 높거나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여성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녔으므로 남편에게 가사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남편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보수적인 경우 가사분담 정도가 낮은 것은 아내들이 보수적이어서 남편의 가사분담을 원하지 않고 남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② 가정내 의사결정권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학력, 직업유형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후검증 결과 50대 이하 집단이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대졸이상 집단이 초졸이하 집단에 비해,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업이나 농업보조자보다 여성의 의사결정참여도가 높았다. 이 중 연령별 결과는 선행연구(농촌진흥청, 1997; 허도희, 1995)와 일치하며, 학력별 결과도 선행연구(농촌진흥청, 199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직업별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렵다.

한편 선행연구(오임숙, 1992; 농촌진흥청, 1997)에서는 주 농사가 시설채소나 특작인 경우 공동의 의사결정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달리 가정내 일과 농사일을

〈표 2〉 변인별 지위수준 차이분석

N=919 #

독립 변인	집 단(사례수)		가사 분담	가정내 의사결정권	농사일 의사결정권	재산명의	전체 지위수준
			M (SD)	M (SD)	M (SD)	M (SD)	M (SD)
연 령	30대이하	(240)	1.43 (.49)	3.10 (.52)b	2.26 (.67)a	1.78 (.64)a ¹⁾	2.16 (.41)
	40대	(421)	1.39 (.49)	3.05 (.51)b	2.44 (.70)ab	1.92 (.75)a	2.19 (.38)
	50대	(214)	1.42 (.54)	3.03 (.60)b	2.47 (.80)b	2.00 (.98)a	2.19 (.43)
	60대이상	(44)	1.32 (.52)	2.72 (.99)a	2.19 (.87)a	2.32 (1.34)b	2.07 (.65)
F 값			.92	5.46***	5.16***	6.58***	1.21
학 령	초졸이하	(281)	1.33 (.49)a	2.93 (.72)a	2.41 (.79)	2.02 (1.06)a	2.12 (.49)a
	중졸	(332)	1.42 (.50)ab	3.03 (.52)ab	2.39 (.71)	1.87 (.72)a	2.19 (.38)a
	고졸	(282)	1.42 (.49)ab	3.14 (.44)ab	2.35 (.68)	1.91 (.70)a	2.20 (.37)a
	대졸이상	(25)	1.61 (.62) b	3.27 (.52)b	2.50 (1.00)	2.27 (.96)a	2.43 (.54)b
F 값			3.55*	6.85***	.48	2.74*	3.78**
연 소 득	1000만원이하	(142)	1.41 (.47)	3.02 (.68)	2.50 (.83)	2.01 (1.05)	2.17 (.43)
	1001-2000만원	(291)	1.43 (.51)	3.00 (.59)	2.33 (.68)	1.90 (.89)	2.14 (.42)
	2001-3000만원	(244)	1.37 (.49)	3.07 (.52)	2.36 (.68)	1.90 (.69)	2.18 (.41)
	3001-4000만원	(110)	1.50 (.56)	3.03 (.48)	2.37 (.71)	2.04 (.90)	2.23 (.40)
	4001-5000만원	(62)	1.34 (.47)	3.04 (.50)	2.57 (.82)	1.90 (.57)	2.21 (.44)
	5001만원이상	(69)	1.39 (.55)	3.13 (.43)	2.36 (.66)	1.91 (.65)	2.22 (.31)
F 값			1.15	.82	1.72	.72	.88
가족 유형	핵가족	(537)	1.41 (.52)	3.05 (.60)	2.43 (.78)a	1.96 (.87)	2.21 (.44)a
	확대가족	(382)	1.39 (.47)	3.03 (.52)	2.33 (.65)a	1.90 (.81)	2.13 (.38)a
t 값			.46	.47	2.04*	1.01	2.55*
직업 유형	농업	(313)	1.38 (.50)a	3.00 (.59)a	2.45 (.77)	1.92 (.97)a	2.16 (.44)a
	다른직업+농업	(72)	1.62 (.60)b	3.29 (.61)b	2.36 (.83)	2.40 (1.06)b	2.35 (.45)b
	농업보조	(534)	1.39 (.48)a	3.03 (.54)a	2.35 (.69)	1.87 (.68)a	2.17 (.39)a
F 값			7.21***	7.65***	1.83	13.81***	5.37**
주 농 사	일반농사	(636)	1.41 (.50)	3.04 (.57)	2.40 (.74)	1.96 (.90)	2.18 (.42)
	과수	(102)	1.40 (.48)	3.04 (.61)	2.45 (.84)	1.99 (.79)	2.22 (.45)
	시설채소, 특작	(63)	1.36 (.51)	3.10 (.50)	2.33 (.58)	1.73 (.72)	2.10 (.40)
	축산	(118)	1.39 (.53)	3.02 (.51)	2.33 (.65)	1.85 (.64)	2.15 (.37)
F 값			.24	.27	.66	1.71	1.08
부부간 성역할 태도 차이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 (237)		1.31 (.50)a	2.98 (.63)	2.35 (.77)	1.74 (.64)a	2.09 (.45)a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 (376)		1.43 (.50)ab	3.05 (.53)	2.35 (.69)	1.82 (.63)ab	2.19 (.39)ab
	부부가 비슷함 (196)		1.46 (.50)b	3.06 (.50)	2.49 (.70)	1.98 (.64)b	2.26 (.39)b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 (110) ²⁾		1.39 (.49)ab	3.09 (.66)	2.40 (.78)	1.73 (.68)a	2.14 (.43)ab
F값			4.08**	1.11	2.03*	5.47***	5.70***

* p<.05 ** p<.01 ***p<.001

결측치에 따라 사례수가 상이할 수 있음

1) 추후검증 결과 동일 문자는 동일한 하위집단에 속하는 것임.

2) 아내가 남편보다 매우 더 보수적인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약간 더 보수적인 경우와 합한 것임.

구분하였고 또 조사지역도 상이한 점과 관련되는 것 같으나 구체적인 것은 후속연구를 요한다.

③ 농사일 의사결정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연령, 가족유형,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였다. 하위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연령과 가족유형으로 50대 집단이 30대집단보다, 핵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여성의 농사일 의사결정 참여도가 더 높았다. 이중 연령별 차이는 선행연구(허도희,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학력별 차이는 선행연구(농촌진흥청, 1997; 허도희, 1997)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유형에서 핵가족의 경우 확대가족보다 부부중심적이므로 여성의 농사일 의사결정참여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또는 약간 보수적인 경우 여성의 농사일 발언권이 유의하게 낮은 것은 남편이 보수적일수록 여성의 발언권이 낮다는 통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④ 재산명의

연령, 학력, 직업유형,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 변인에 따라 재산명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0대이상 집단이 50대이하 집단보다,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업이나 농업보조자보다, 부부가 비슷한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경우에 남편이 매우 보수적이거나 여성이 보수적인 경우보다 여성의 재산명의 정도가 유의하게 많았다.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재산명의가 여성에게 있는 경향이 있으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결과 중 연령이 많을수록 재산명의가 남성에게 덜 집중된 것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농사일이 많아지는 데 따라 여성의 소득도 누적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여성이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여성 몫의 별도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재산명의가 용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에 부부중 어느 한쪽이 보수적인 경우보다 여성의 재산명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가사분담의 지위수준에서도 일치되게 나타난 결과로서 남편이 아내보다 보수적이면 그 태도 때문

에, 또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이면 자신의 권리의식에 대한 요구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⑤ 전체 지위수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학력, 가족유형, 직업,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이었다. 추후검증결과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이하집단에 비해, 핵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농업인 집단이나 농업보조자 집단보다, 부부가 비슷한 성역할태도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태도로 지각한 집단보다 여성의 전체 지위수준이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로 학력이 높은 경우,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핵가족의 경우, 부부가 비슷한 성역할태도인 경우 농촌 여성의 종합적인 지위수준은 높다할 수 있다.

이 중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지위수준이 학력,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본 결과는 선행연구(농촌진흥청, 1997)결과와 상반되었는데 이는 사용된 척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선행연구는 지역사회활동 정도를 척도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는 그 대신에 가사분담 정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선행연구보다 지위수준 점수도 더 낮고 관련 변인도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분담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변인은 학력, 농사일비율, 성역할태도이었다.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연령, 학력, 성역할태도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농사일 의사결정권과 재산명의는 연령, 농사일비율, 성역할태도 등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지위수준은 학력, 농사일비율, 성역할태도,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 등의 변인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에서 연령과 지위수준의 각 하위영역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농촌진흥청, 1997; 허도희, 1995)와 동일하다.

성역할태도변인은 지위수준의 하위영역 및 전체

〈표 3〉 관련변인간 상관관계

변 인	N=9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연령	1.00													
2. 학력	-.57***	1.00												
3. 연소득	-.08*	.09*	1.00											
4. 농사일 비용	.14***	-.16***	.02	1.00										
5. 성역할태도	-.33**	.30***	.08*	-.04	1.00									
6. 부부간 성역할태도차이	.04	-.06	-.03	.02	-.04	1.00								
7. 가사 분담	-.04	.08*	-.02	-.10**	.17**	.06	1.00							
8. 가정내 의사결정권	-.11**	.18***	.03	.00	.27***	.05	.14***	1.00						
9. 농사일 의사결정권	.07*	-.01	.01	.36***	.17***	.05	.05	.42***	1.00					
10. 재산명의	.16***	-.03	-.02	.18***	.07*	.05	.19***	.30***	.26***	1.00				
11. 전체 지위수준	-.00	.10**	.02	.15***	.27***	.07*	.44***	.70***	.70***	.66***	1.00			
12. 가사분담 민족	.10**	-.08*	-.09**	-.07*	-.10**	.16***	.28***	.01	.06	.09*	.16***	1.00		
13. 발언권 민족	-.01	.02	.08*	.06	-.01	.19***	.17**	.20***	.21***	.20***	.33***	.35***	1.00	
14. 재산명의 민족	.12**	-.09**	.08*	.08*	-.08*	.18***	.03	.10**	.14***	.29***	.20***	.27***	.35***	1.00
15. 전체 지위민족	.09**	-.07*	.03	.01	-.09*	.24***	.23***	.14***	.19***	.24***	.30***	.75***	.76***	.71***

* p<.05 ** p<.01 *** p<.001

지위수준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변인은 전체 지위수준과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앞에서 관련변인별 지위수준의 차이검증결과에서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변인은 3점일 때 공통적으로 가장 지위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직선적 분석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중회귀 분석에서는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고 아울러 직업유형도 명목변인이므로 역시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관련변인의 영향력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지위수준 영역별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전체 지위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관련변인으로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연령, 학력, 농사일비율, 성역할

태도, 가변수화한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 변인과 직업유형 변인을 포함하였다.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통적으로 2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었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beta = .15$),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beta = .10$),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하다고 여성이 지각한 경우 ($\beta = .09$) 여성의 지위수준이 높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04이었다.

가정내 의사결정참여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beta = .23$), 학력이 높을수록 ($\beta = .11$),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beta = .08$), 남편이 자신보다 약간 보수적인 태도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 ($\beta = .07$) 여성의 지위수준이 높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09이었다.

농사일 의사결정참여에 대해서는 농사일 비율이

<표 4>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가사 분담		가정내 의사결정권		농사일 의사결정권		재산명의		전체 지위수준	
	B	β	B	β	B	β	B	β	B	β
성역할태도	6.14E-02	.15***	3.58E-02	.23***	3.09E-02	.16***	2.32E-02	.13***	2.80E-02	.25***
학력			6.28E-02	.11**						
농사일비율					1.19E-02	.36***			3.63E-03	.19***
부부의 성역할태도 비슷 ¹⁾	.31	.09*			.13	.07*	.23	.15***	.12	.12***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 ²⁾			.13	.07*						
농업과 겸업 ³⁾	.58	.10**	.17	.08*			.39	.17***	.19	.12**
농사보조 ⁴⁾							.15	.11**	6.60E-02	.08*
상 수	2.97		2.09		1.16		1.21		1.38	
R ²	.04		.09		.16		.07		.12	
F 값	12.28***		20.51***		50.75***		13.32***		19.19***	

* p<.05 ** p<.01 *** p<.00

- 1) 가변수로서 기본단위 1점,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다른 경우 0점
- 2) 가변수로서 기본단위 1점, 나머지는 0점
- 3) 가변수로서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1점, 농업인의 경우나 농사보조자 경우 0점
- 4) 가변수로서 농사보조자 1점,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업인의 경우 0점

높을수록($\beta = .36$),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beta = .16$),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하다고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beta = .07$) 여성의 지위수준이 높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6이었다.

재산명의 정도에 대해서는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beta = .17$),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하다고 지각하는 경우($\beta = .15$),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beta = .13$), 농사보조자인 경우($\beta = .11$) 여성의 지위수준이 높았으며 변인들의 설명력은 .07이었다.

전체 지위수준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beta = .25$), 여성의 가정내 농사일비율이 높을수록($\beta = .19$),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beta = .12$),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하다고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beta = .12$), 농사를 보조하는 경우($\beta = .08$) 여성의 지위수준이 높았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2이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정내 여성의 농사일비율이 높을수록,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사보조자인 경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 여성의 지위수준이 증가한다 하겠다. 이 결과들은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요하나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인 경우에 각 하위영역별 지위수준은 물론 전체 지위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는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결정에 여성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매우 큰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하다고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에 가사분담, 농사일 의사결정권, 재산명의 및 전체 지위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67% 정도의 남편들이 아내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된다. 이 결과들은 부부권력에 관한 성역할 이데올로기 이론이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에도 입증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내 의사결정권에서 여성의 지위수준은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태도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여서 더 세밀한 분

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를 여성의 지각을 중심으로 측정하였고 가변수로 처리하여 지위수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실제 부부 비교를 통한 유형화작업 및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가정내 농사일비율이 높은 경우에 농사일 의사결정참여와 전체 지위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는 최근 농촌여성의 지위를 논할 때 제시되는 여성의 농업참여 증대는 여성의 지위수준 향상을 가져온다는 전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농사일 의사결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위수준과 전체 지위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는 이 집단이 일정한 소득원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여성의 농업기여도가 높을수록,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여성의 지위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부부권력에 관한 자원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자원 변인 중의 하나인 학력이 여성의 가정내 의사결정권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체 지위수준이나 다른 영역의 지위수준에는 영향력이 없는 결과는 성역할태도 등의 변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상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본 결과에서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에 대해 변인의 설명력이 높지 못하고 특히 가사분담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 외에 다른 설명력있는 변인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보편적으로 농업인 여성의 지위수준이 낮은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4. 농촌여성의 지위만족

1) 일반적인 경향

각 문항별 경향에서 가사분담 만족도와 재산명의 만족도는 각각 평균값이 2.71(표준편차 1.14), 2.88(표준편차 1.01)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자신의 발언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3.03(표준편차 1.04)으로서 보통이었다. 이를 종합한 전체 지위만족

도는 평균 2.86(표준편차 .79)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앞에서 가사분담 영역과 재산명의 영역의 지위수준이 낮고 의사결정권 영역의 지위수준은 약간 나은 상태를 보이는 경향과 일치된 것이다.

2) 관련변인

(1) 차이분석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위만족도 각 영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연령, 학력,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 등이고, 전체 지위만족도는 연령, 직업유형, 주 농사,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변인의 경우 60대 이상 집단이 40대 이하집단에 비해 발원권 만족을 제외한 모든 지위만족도가 높으며 추후검증결과 재산명의만족과 전체 지위만족도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학력변인은 가사분담만족도와 재산명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직업변인은 전체 지위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주 농사의 경우는 가사분담 만족과 전체 지위만족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지위만족도와 전체 지위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추후검증 결과 집단별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부가 비슷한 태도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에 지위만족도가 가장 높고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집단에서 지위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와 지위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상관관계 분석

지위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 학력, 성역할태도,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 지위수준 등이었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여성이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적게 지각할수록,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지위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3) 관련변인의 영향력

농촌여성의 지위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가지의 지위만족별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전체 지위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차이검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관련변인으로 연령, 학력, 농사일비율, 성역할태도,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변인들과, 가변수화한 변인으로서 여성이 지각한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변인과 직업유형변인을 포함하였다.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통적으로 2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사분담만족도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09이었다.

발원권만족도는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태도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농사보조자인 경우 증가하였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9이었다.

재산명의만족도는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2이었다.

전체 지위만족도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beta = .35$),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beta = .31$), 여성자신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beta = -.16$),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beta = .15$),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지각한 경우($\beta = .10$), 농사보조자인 경우 ($\beta = .10$), 학력이 낮을수록 ($\beta = -.08$) 증가하였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3이었다.

이로써 연령, 학력, 농사일비율, 직업유형 등의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3가지 지위만

〈표 5〉 변인별 지위만족도 차이분석

N=919#

독립 변인	집 단(사례수)		가사분담만족	발언권만족	재산명의 만족	전체 지위만족도
			M (SD)	M (SD)	M (SD)	M (SD)
연 령	30대이하	(240)	2.63 (1.17)a ¹⁾	3.06 (1.05)	2.83 (1.03)a	2.84 (.79)a
	40대	(421)	2.63 (1.14)a	3.01 (1.08)	2.80 (1.00)a	2.80 (.75)a
	50대	(214)	2.87 (1.13)a	3.01 (1.01)	2.97 (.96)ab	2.92 (.76)ab
	60대이상	(44)	2.93 (.95)a	3.16 (1.13)	3.27 (1.03)b	3.13 (.85)b
F 값			2.98*	.37	5.05**	3.35*
학 령	초졸이하	(281)	2.77 (1.13)a	2.97 (1.08)	3.05 (1.00)a	2.92 (.83)
	중졸	(332)	2.82 (1.16)a	3.06 (1.01)	2.81 (.97)a	2.89 (.75)
	고졸	(282)	2.52 (1.10)a	3.02 (1.05)	2.80 (1.01)a	2.77 (.77)
	대졸이상	(25)	2.60 (1.26)a	3.24 (1.13)	2.89 (1.22)a	2.89 (.84)
F 값			3.94**	.71	4.19**	1.94
연소득	1000만원이하	(142)	2.82 (1.14)	2.94 (.99)	2.90 (1.00)	2.88 (.81)
	1001-2000만원	(291)	2.73 (1.14)	2.94 (1.04)	2.80 (.99)	2.81 (.78)
	2001-3000만원	(244)	2.67 (1.13)	2.97 (1.02)	2.85 (.97)	2.83 (.78)
	3001-4000만원	(110)	2.62 (1.10)	3.15 (1.09)	2.87 (1.06)	2.86 (.79)
	4001-5000만원	(62)	2.50 (1.00)	3.17 (1.11)	2.80 (1.07)	2.82 (.78)
	5001만원이상	(69)	2.50 (1.26)	3.29 (.97)	2.94 (1.01)	2.91 (.73)
F 값			1.19	2.02	.34	.29
가족 유형	핵가족	(537)	2.73 (1.18)	3.02 (1.07)	2.91 (1.01)	2.88 (.80)
	확대가족	(382)	2.65 (1.08)	3.04 (1.01)	2.83 (.99)	2.83 (.77)
t 값			1.18	-.30	1.36	.92
직업 유형	농업	(313)	2.62 (1.15)	2.92 (1.05)	2.82 (1.02)	2.77 (.81)a
	다른직업+농업	(72)	2.72 (1.27)	3.03 (.96)	2.98 (1.15)	2.89 (.78)a
	농업보조	(534)	2.74 (1.11)	3.09 (1.05)	2.90 (.97)	2.91 (.77)a
F 값			1.08	2.73	1.20	3.16*
주농사	일반농사	(636)	2.77 (1.15)a	3.05 (1.04)	2.93 (1.02)	2.91 (.80)a
	과수	(102)	2.55 (1.10)a	3.00 (.95)	2.82 (.97)	2.79 (.71)a
	시설채소, 특작	(63)	2.51 (1.17)a	2.84 (1.12)	2.66 (.99)	2.66 (.85)a
	축산	(118)	2.53 (1.08)a	3.05 (1.07)	2.77 (.95)	2.75 (.72)a
F 값			3.08*	.90	2.27	2.90*
부부간 성역할 태도차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	(237)	2.38 (1.19)a	2.60 (1.02)a	2.64 (.98)a	2.54 (.79)a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	(376)	2.65 (1.06)ab	3.08 (1.00)b	2.76 (.95)ab	2.83 (.73)b
	부부가 비슷함	(196)	3.15 (1.14)c	3.45 (.98)c	3.23 (2.03) c	3.21 (.77)c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	(110) ²⁾	2.71 (1.05)b	3.02 (1.02)b	2.98 (.92)bc	2.90 (.70)b
F값			17.97***	26.28***	15.59***	36.03***

* p<.05 ** p<.01 ***p<.001

결측치에 따라 사례수가 상이할 수 있음

1) 추후검증 결과 동일 문자는 동일한 하위집단에 속하는 것임.

2) 아내가 남편보다 매우 더 보수적인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약간 더 보수적인 경우와 합한 것임.

〈표 6〉 지위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가사분담 만족		발언권만족		재산명의 만족		전체 지위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부부의 성역할 태도 비슷함 ¹⁾	.57	.20***	.72	.29***	.48	.20***	2.02	.35***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47	.17***	.82	.33***	.51	.21***	1.77	.31***
여성의 성역할태도	-5.07E-02	-.16***	-2.72E-02	-.10**	-2.99E-02	-.11**	-.10	-.16***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 ²⁾			.39	.19***			.71	.15***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 ³⁾			.33	.10*			.76	.10**
농사보조자 ⁴⁾			.24	.11***			.49	.10**
학력					-.12	-.11**	-.20	-.08*
상 수	2.48		1.24		2.66		6.26	
R ²	.09		.19		.12		.23	
F 값	23.94***		27.35***		22.92***		29.73***	

* p<.05 ** p<.01 *** p<.001

- 1) 가변수로서 기본단위 1점,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다른 경우 0점
- 2) 가변수로서 기본단위 1점, 나머지 경우 0점
- 3) 가변수로서 기본단위 1점, 나머지 경우 0점
- 4) 가변수로서 농사보조 1점,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업종사자의 경우 0점

족도와 전체 지위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변인과,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여성의 성역할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지위만족도가 높은 것은 처음 발견한 사실이나 충분히 예견된 결과이다. 앞의 지위수준 분석결과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성의 평등적 성역할태도와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경우이었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여성이 평등적일수록 지위수준이 높은 반면 지위만족도는 낮아지고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의 지위수준과 지위만족도가 모두 높아진다는 결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태도변화가 늦은 문화지체현상이 지배적인 현 사회실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

을수록 지위만족도가 높은 것은 현재 결과가 좋으면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공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 여성의 발언권 만족도와 전체 지위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이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이 농사보조자인 경우이었다. 이 결과를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경우와 함께 고찰해볼 때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변인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비슷하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인 경우 모두 여성의 지위수준과 지위만족도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은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과 지위만족도를 증가시키려면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지 않도록 해야하며, 가능한 부부의 성역할태도 차이를 좁히고 남

편이 평등적 태도를 지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농사보조자인 경우에 전체 지위만족도와 재산명의 만족 또는 발언권만족이 높은 결과는 그 만큼 자신의 지위에 대해 문제의식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지위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더불어 이론적인 선행연구(김영란, 1989; 김종숙 외, 1992; 김주숙, 1981, 1988)를 실증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 평등사회와 평등한 부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분석적 연구가 전무한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고 성역할태도 변인을 포함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규모의 표집에 의하여 919명의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여성은 약간 보수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이었다. 이들의 66.7%가 남편이 자신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인 것으로 지각하였고 이 경향은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여성들의 경우 농업인이나 농업보조자 여성보다 더 많았다.

둘째 농촌여성의 지위수준에서 가정내 의사결정권은 동등하나 농사일 의사결정, 재산명의, 가사분담 영역의 지위수준은 매우 낮았고 전체 지위수준도 낮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여성의 가정내 농사일비율이 높을수록,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 농사보조자인 경우에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은 증가하였다. 이외에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내 의사결정면의 지위수준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있었다. 이로써 부부권력 및 부부간 지위에 관한 성역할 이데올로기이론과 자원이론이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째 농촌여성의 지위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발언권 만족은 보통이나 가사분담 만족은 가장 낮았다.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부부간 성역할태도 차이, 여성의 성역할태도, 직업유형, 학력 등이었다. 즉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한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이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농사보조자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여성의 지위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역할태도 및 그들이 지각하는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 부부간 지위수준, 지위만족도 실태를 파악하고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증가하나 지위만족도는 낮아지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고 지위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이외에 여성의 직업유형, 농사일비율, 학력 등이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과 지위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미비된 상태에서 농촌여성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남편을 직접 조사하거나 직접적 자료를 통한 부부유형화 작업이 미진한채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지위수준이나 지위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크지 못한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 현재 시대적 흐름이 농촌사회에서 부부간의 평등하고 동반적 관계를 가속화시킬 추세이나 그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대한 더욱 정교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고정숙·이한기(1993). 농촌가족생활 장기변화 연구

- 대구권역을 중심으로. 농촌생활연구소 연구 보고서.
- _____ (1994). 농촌가족생활 장기변화 연구-대구권역을 중심으로. 농촌생활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경미(1997). 농가의 가사노동 특성 및 만족수준 분석. 농촌생활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1998). 농가의 가사분담실태와 생활만족도. 농촌생활과학 19(1).
- 김영란(1989). 한국 농촌여성 연구를 위한 일 고찰.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23.
- 김종숙·정명채(1992). 한국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주숙(1988). 여성 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 농림부(1998). 농림업 주요 통계.
- 농촌진흥청(1993).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수준 비교 분석 보고서.
- _____ (1997). 농촌여성의 역할수행 및 지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 박수미(1995). 농촌사회의 위기와 농촌가족의 적응전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양자(1995). 농촌·도시 주부의 생활문화의식에 관한 연구. 농촌생활과학 16(3), 19-24.
- 심미옥(1997). 농촌여성의 지위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오임숙(1992). 대구근교 상업농지역 여성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1994).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 및 대응행동분석.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김태현(1989).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 가족역할구조 분석-서울시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09-126.
- 이성희·하근영(2000).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I):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 123-138.
- 이진숙(1989).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의 상대적 권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한기·고정숙(1996). 농촌가족생활 장기변화 연구-대구권역을 중심으로. 농촌생활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1997). 농촌가족생활 장기변화 연구-대구권역을 중심으로. 농촌생활연구소연구보고서.
- 정기환(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구조와 경제활동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 조현숙(1999). 한국농촌여성의 농작업참여 실태와 지원요구도. 농촌생활과학 20(1), 10-16.
- 최규련(1984a).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2.
- _____ (1984b).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I). 수원대학교논문집 2, 399-413
- _____ (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아동학·가족학(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편.
- _____ (1995). 한국도시 맞벌이부부 문제: 부부관계. 하우출판사.
- 최덕경(1999).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준. 한국농촌생활과학회. 농촌생활연구소 공동주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방안심포지움자료집.
- 통계청(1999). 1998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 한경혜·장마나(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45-56.
- 한국여성개발원(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농가주부를 중심으로.
- _____ (1990). 우리 농촌과 여성.
- _____ (1991). 평등한 부부이야기.
- _____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 _____ (1999a).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개발.
- _____ (1999b).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 허도희(1995). 농촌여성의 의식구조에 관한 고찰-제주지역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ston, M.(1995). Women and their work on Australian farms. *Rural Sociology* 60(3), 521-532.
- Reimer, B.(1986). Women as farm labor. *Rural Sociol-*

ogy 51(2), 143-155.
Sachs.C.E.(1983). *The invisible farmers*. NJ : Rowman
& Allanheld.
Scanzoni, J. & Fox, G. L.(1975). Sex role, family and

society :The seventie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Whatmore, S., Marsden, T. & Lowe, P.(1994). *Gender
and rurality*. London : David Fulton Pbs.